

‘고향 추억’ 전통 산수화·호남 풍경에 담다

CULTURE

2025년 4월 4일 금요일

판문화전당, 오늘부터 지역작가 초대전 ‘산수극장’

개관 10주년...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신작 선보

지역 대표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가 전통 산수화와 호남의 자연 실경을 통해 고향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을 녹여낸 신작 전시를 선보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직무대리 김상욱)이 ‘ACC 지역작가 초대전-이이남의 산수극장’을 4일부터 7월 6일까지 복합전시5관에서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개관 10주년을 맞아 ACC가 지역과 함께 한 시간을 되짚고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광주·전남지역을 대표하는 이이남 작가를 조명한다.

이이남은 전남 담양에서 태어나 광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로 고전 서화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킨 미디어 아트를 선보여 주목받고 있다.

ACC와는 개관 페스티벌 공연 ‘세컨드 에디션(2015)’을 시작으로 창·제작 센터 강연 프로그램 ‘ACT’(2016), ‘아외전시’ ‘하늬풍경(2024)’에 이어 최근에는 주중한국문화원 협력전시 ‘모두의 도원(2024)’ 등 다수 전시에 참여하며 지속적으로 인연을 쌓아왔다.

작가가 그동안 동양 미학을 통해 자아의 본질을

탐구하는 추상적인 작업에 몰두해왔다면, 이번 전시는 전통 산수화와 호남의 자연 그리고 가족과의 추억을 아우르며 향수 어린 시선을 담아낸 미디어 아트를 소개한다.

작품 곳곳에 작가의 고향인 담양의 병풍산과 전남 곳곳을 따라 흐르는 영산강 등 호남의 풍경이 배경으로 등장해 지역민에게 향수를 자아내고 어린 시절 추억을 불러일으킨다. 익숙한 산수화와 실경의 결합은 남도의 강산이 낯선 관람객에게도 친근함을 선사한다.

전시는 ‘나의 살던 산수’, ‘어머니 그리고 산’, ‘고향산수도’, ‘아버지의 폭포’, ‘산수극장’, ‘고향의 빛’ 등 6개 주제 24점의 신작으로 구성된다.

이중 ‘어머니 그리고 산’은 어머니를 그리는 작가의 마음이 잘 녹아있는 작품으로 거대한 두루마리 속에 산수와 폭포 소리가 함께 펼쳐져 장관을 이룬다. 이제는 만날 수 없는 어머니가 사후에도 생전 유람할 수 없었던 아름다운 산수에 머물길 바라는 작가의 애틋한 마음이 잘 담겨 있다.

‘아버지의 폭포’는 가족을 위해 쉬 없이 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폭포에 비취는 작품이다. 긴 북도 끝에 가파른 암벽이 서 있는 모습으로, 수레 굴러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ACC 지역작가 초대전-이이남의 산수극장’을 4일부터 7월 6일까지 복합전시5관에서 선보인다. 사진은 작품 ‘산수극장’.

는 소리가 이끄는 방향으로 절벽을 향해 걸다보면 오른쪽 골짜기에서 길게 떨어지는 폭포를 마주한다. 어린 시절 눈으로 향하던 아버지의 뒷모습을 떠올리며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존경을 표현했다.

전시의 제목이기도 한 ‘산수극장’은 담양의 대나무숲과 병풍산을 목격도와 산수화에 연결한 작품이다. 부드러운 천 겹겹이 비취는 대나무를 헤치고 가면 거대한 산수가 웅장하게 모습을 드러낸다. 다채로운 풍경을 한 데 섞어 모든 관람객이 저마다의 고향을 떠올릴 수 있도록 구현했다.

이밖에 포스코와 협업해 스테인리스 스틸에 섬세한 질감을 부여한 ‘인간-자연-순환’, ‘가족산수

도’, 영산강 밤과 노을이 아름다운 ‘고향의 빛’ 등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이이남 작가는 “‘산수극장’은 호남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자랐던 유년시절의 기억을 바탕으로 어머니와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추억 등 제 이야기를 담아낸 전시”라며 “끝없이 기술을 추구하고 앞으로만 달려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점차 중요한 것을 잊게 되는 것 같다. 이번 전시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 속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잊고 지냈던 것들을 떠올리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한다. 또 극장에서 작품을 보고 공감하듯이 세대를 떠나 모두가 고향을 추억하고 공감할 수 있기를 바

란다”고 말했다.

또 김상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직무대리는 “이번 전시는 개관 10주년을 맞아 지역 문화예술과 상생하고 소통하기 위한 측면에서 기획했다. 앞으로도 ACC는 지역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민과 예술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CC는 오는 6월 미디어 아트 및 지역미술 전문가들과 함께 이이남의 작품세계를 고찰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시 관람료는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다경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찾아가는 ‘일상 속 문화’ 만끽하세요

광주문화재단 ‘찾아가는 문화공연’

매주 토요일 5개 구 야외공연장서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희용)이 5개 구 야외공연장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문화공연-당신곁에’의 4월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4월은 ‘산에는 꽃 피네’를 주제로, 봄이 선사하는 설렘과 강렬한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인다. 일렉트로닉 팝, 전통무용, 포크송, 퓨전 국악, 타악기 연주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와 더불어 시립예술단의 공연도 감상할 수 있다.

먼저 오는 5일 오후 4시 30분 동구 ACC상상마당에서는 여성 팝 밴드 원보틀이 ‘북마크 온 원보틀’이라는 제목으로 첫 무대를 꾸민다. 대중적이면서도 일렉트로닉한 비트의 드럼 연주로 신선함을 선사하는 원보틀은 ‘Fall’을 비롯한 자작곡과 김광석의 명곡 커버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같은 시간 광산구 쌍암공원에서는 외씨버선이 대중음악과 흥겨운 국악을 접목한 공연 ‘이 순간 AT THE MOMENT’를 진행한다. 가야금 3중주로 전설적인 팝그룹 비틀즈의 명곡들을 연주한다.

또 남구 푸른길공원(주월동)에서는 광주시립창극단의 ‘풍류 in 광주’ 공연이 열린다. 교방무, 판소리, 아쟁산조, 남도민요, 사물놀이 등 풍성한 전통예술을 감상할 수 있다. 이 공연은 12일 북구 양산호수공원과 16일 오후 1시 30분 ACC상상마당에서도 이어진다.

둘째 주 토요일인 12일에는 광주시립교향악단

이 서구 상무시민공원에서 오후 3시부터 무대에 서며, 19일 쌍암공원에서는 시립국악관현악단이 ‘국악 미니 콘서트’를 오후 5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시립예술단은 발레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극단, 오페라단 등이 11월까지 약 20회에 걸쳐 공연을 선보인다.

셋째 주 19일 오후 4시 30분부터는 성악과 현대적 보컬이 어우러진 멜로디스가 ‘낭만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공연을 연다. 조수미 등의 성악곡부터 김트리오, 강산에, 김광석 등 대중가수들의 노래까지 아우르며 관객 신청곡도 받는다.

넷째 주 26일 서구와 북구에서는 각각 산울림예술회관과 타악그룹 얼우가 공연을 준비한다. 광주 지역에서 통기타 라이브 연주로 10년 이상 버스킹을 계속 해 온 산울림예술회관은 ‘길 위의 무대, 삶 속의 예술’이라는 제목으로 ‘안동역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 등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곡들을 들려준다.

타악그룹 얼우가 준비한 공연은 ‘자유로운 음악 프리라’이다. 진도북춤, 판굿, 버구춤, 삼도설장구 등 타악기와 전통연희로 봄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무대다.

한편 공연은 5개 구별 야외 거점공연장에서 매주 토요일 진행되며, 동구의 ACC상상마당, 남구 푸른길공원, 광산구의 쌍암공원 등 3개소에서 첫째·셋째 주 토요일, 서구 상무시민공원, 북구 양산호수공원 등 2개소에서 둘째·넷째 주 토요일에 열린다.

야외 공연은 여름철(7~8월)을 제외하고 4월부터 11월까지 계속된다. 김다경 기자 alsqsl94@



광주문화재단이 5개 구 야외공연장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문화공연-당신곁에’의 4월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사진은 4월 광산구 공연팀 외씨버선의 무대 모습.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 탐구

정창기 초대전 서양화 11점...10일까지 우제길미술관

정창기 작가의 초대전이 지난 1일 개막, 오는 10일까지 우제길미술관에서 ‘무한의 여백, 공과 무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출품작은 서양화 11점.

작가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조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이번 전시에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탐구하며, ‘공(空)’과 ‘무(無)’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여백의 미학과 무한의 가능성이 담긴 작품을 접할 수 있다.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무한한 사유와 감상의 공간을 제공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할 이번 전시에서는 자연의 생명력을 우화로 표현한 대표작뿐만 아니라 신작들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정창기 작가는 서양화 기법을 활용하면서도

동양적 결(texture)과 강렬한 색채를 조화롭게 녹여내며, ‘한국 난(蘭)’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선의 세계를 구축해 왔다.

유화 물감으로 시(詩)와 서(書)를 표현하는 그의 작업은 먹을 사용한 전통 서예와는 또 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의 작품 속 난초는 한편으로는 유한한 생명의 상징이면서도, 동시에 끝없는 가능성을 향한 예술적 탐구의 대상이 된다.

이번 전시는 공동 기획자인 박경식, 김민경과 함께 준비했으며, 작가의 철학과 예술적 여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작품 속 자연의 색채와 빛의 조화는 관람객들에게 마음의 평온함과 예술적 영감을 선사할 것



‘무한의 여백-대지’

으로 기대된다.

우제길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자연과 삶, 그리고 예술의 본질을 다시금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기득권 위선 비판한 ‘타르튀프’ 고전 연극 선포

광주시립극단, 24~26일 광주예당

프랑스의 거장 극작가 몰리에르의 대표작을 광주시립극단 무대로 만난다.

광주시립극단(예술감독 원광연)의 제24회 정기공연 ‘위선자 타르튀프’가 24~26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린다.

‘위선자 타르튀프’는 프랑스의 3대 고전주의 극작가 중 한명인 몰리에르가 1664년 발표한 희극으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연극 중 하나다.

17세기 부패 종교인들을 꼬집는 내용의 작품은 1664년 베르사유 궁전에서 초연 당시 기득권 세력인 성직자들과 귀족들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공연이 전면 금지됐으나, 긴 소송 끝에 1669년 공연 허가를 받고 재연해 큰 성공을 거뒀다.

희극적인 상황을 통해 웃음을 선사하지만, 그 내면에는 인간 사회의 허위와 위선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시립극단은 고전 명작 시리즈를 통해 새로운 고전 명작 발굴 및 주요 고전의 레퍼토리화를 추진하며 양질의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작품은 고전 명작 시리즈의 하나로 원광연 예술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원광연 예술감독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위선자 타르튀프’를

통해 시민들께 통쾌한 웃음을 선사해 드리고 싶다. 더불어 동시대에도 존재하는 위선자들에게 미혹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고, 가족 간의 신뢰와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공연은 13세(중학생) 이상 관람 가능하며 러닝타임은 100분이다. 입장료는 S석 2만원, A석 1만 원, 문의 062-511-2759 김다경 기자 alsqsl94@



‘광주 버스킹월드컵’ 참가 모집 30일까지 접수...상금 4000만원

동구문화관광재단은 ‘제4회 2025 광주 버스킹 월드컵’에 참가할 뮤지션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광주와 광주 동구가 주최하고 동구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광주 버스킹월드컵’은 전 세계 50개국 이상의 개성 넘치는 뮤지션들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버스킹 경연대회로, 예선부터 본선(32강-16강-5강)을 거쳐 결선 무대에서 최종 우승팀을 가린다.

지난해에는 총 58개국 781팀(국내 534팀·국외 247팀) 2143명의 뮤지션이 경연에 참가했다.

경연 참가 뮤지션에게는 국적과 장르에 제한없이 글로벌 무대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며 총 상금 4000만원과 음원 유통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참가 자격은 만 19세 이상의 뮤지션으로, 창작곡 또는 기성곡을 포함한 5분 이내의 라이브 공연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 한 후 해당 링크를 신청 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예선을 통과한 32개 팀은 세계적인 음악 전문가들 앞에서 실력을 겨루게 된다. 특히 올해는 해외 음악 페스티벌 및 공연 프로그래머, 디렉터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우수한 참가자에게 글로벌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본선 진출 팀에게는 음원 유통, 항공료 및 교통비, 숙박, 버스킹 프리존 공연 기회, 홍보 등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다경 기자 alsqsl94@gwangnam.co.kr